



이슈분석		동향분석		CEO 라운지		경제지표	
I. 최근 美 경제지표 호전소식의 진실	2	I. 해외경제	12	I. 2/4분기 중소제조업 경기전망	18	경제지표	26
II. 미국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고찰	6	II. 국내경제	13	II. 중소기업 컨설팅 사례	19		
III. 금융위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의 영향	10	III. 중소기업	14	III. 부동산 및 세법 소식	20		
		IV. 금융시장	16	IV. 서평	23		
		V. 자금흐름	17				

I. 최근 美 경제지표 호전소식의 진실

■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을 깨고 2월 美경제지표가 동시에 호전

- 불과 1개월 전만해도 美경기가 회복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2월의 소식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

■ 예상치를 상회한 2월 美 경제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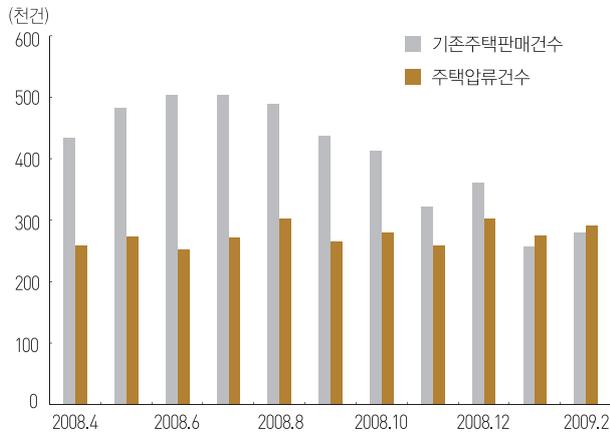
경제 지표		2월 발표치
주택 경기	신규주택 허가	전월대비 3.0% 증가
	신규주택 착공	'90년 이래 최고치인 전월대비 22.2% 급증
	신규주택 판매	작년 4월 이래 최고치인 전월대비 4.7% 증가
	기존주택 판매	'03.7월 이래 최고치인 전월대비 5.1% 증가
제조업 경기	내구재 주문 ISM 제조업 지수	7개월 만에 전월대비 3.4% 증가하며 회복세 전환 2개월 연속 상승하며 35.8 기록
소비 동향	소매 매출 소비 지출	예상치(-0.5%)보다 양호한 전월대비 -0.1% 기록 전월대비 0.2%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증가세

자료 : 각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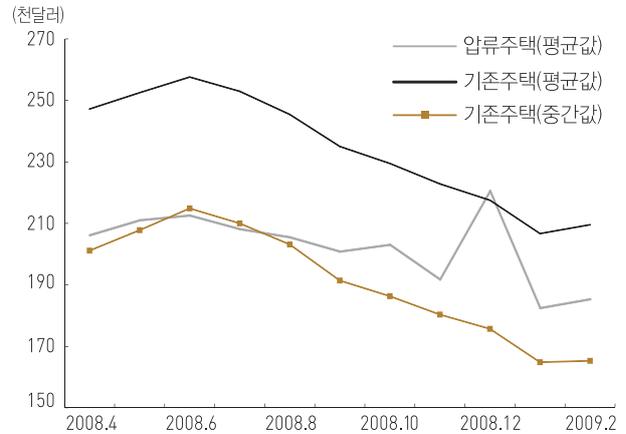
■ 그러나 주택판매건수가 증가한 것은 계절효과와 차압주택의 급매물 거래 때문

- '09.2월 美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90년 이후 최고치인 전월대비 22.2% 급증했지만 향후 지속성 여부는 불분명
 - '09.1월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46만 6,000채로 관련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59년 이후 사상 최저치였음을 감안할 때, 2월의 상승세는 기저효과에 불과
 - 특히 2월 신규주택 착공은 겨울철 중단되었던 주택건설이 일찍 찾아온 봄 날씨에 힘입어 서둘러 이뤄졌다는 의견이 중론
- 2월 기존주택 판매건수가 전월대비 5.1% 증가했지만 이 중 약 50%가 차압주택 거래
 - '09.2월 주택 압류건수는 총 29만 631건으로 전월대비 6.0% 증가했는데 440가구당 한 채 꼴로 주택이 압류되는 상황
 - '09.2월 기존주택 판매가격(16만 달러, 중간값)과 압류주택 판매가격(18만 달러, 평균값)을 비교할 때, 기존주택 판매의 대부분은 압류주택 거래인 상황

기존주택판매와 주택압류 건수



기존주택과 압류주택 판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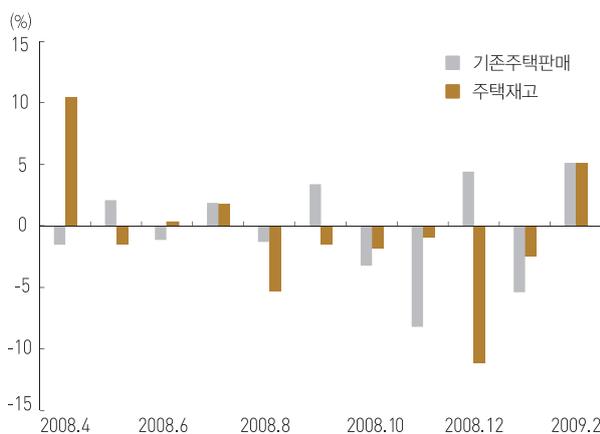


주 : NAR과 Realtytrac의 조사는全美 거래 및 압류부동산 시장의 범위를 대부분 포괄
 자료 : NAR (全美부동산업자협회), Realtytrac (美저당물부동산 전문업체)

美 주택재고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압류된 주택의 판매마저 부진한 상황

- '09.2월 기존주택 판매건수가 전월대비 5.1% 증가했으나 주택재고 증가율 또한 5.2%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는 여전히 진행 중
- 특히 압류주택수가 '09.2월 전월대비 5.9% 증가했지만 압류주택 中 판매된 건수는 전월대비 7.3%p 하락하며 그 비중이 24.5%로 낮아진 상황

기존주택판매 및 재고증가율



압류주택 중 판매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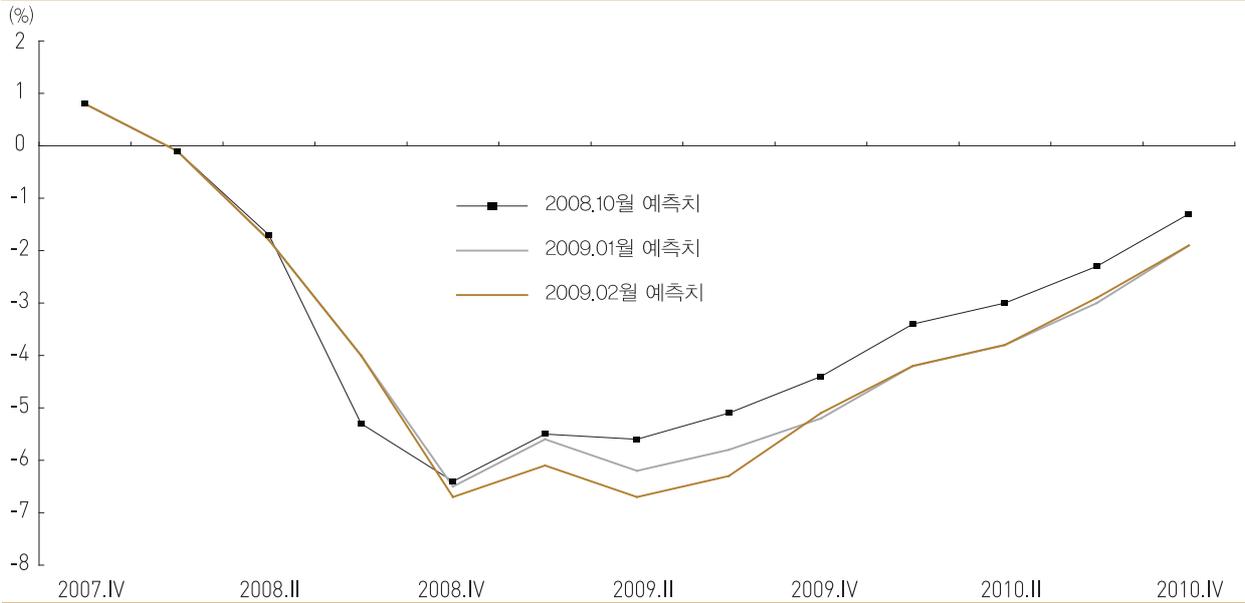


자료 : NAR (全美부동산업자협회), Realtytrac (美저당물부동산 전문업체)

'09.2월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 오히려 가격 전망치는 하향 수정 중이며 주택경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여전히 부정적

- '09.1월 美연방주택금융(FHFA) 주택가격이 불경기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1.7% 상승했지만 정작 FHFA는 '09.2월 향후 주택가격 예측치를 전월의 예측치보다 하향 수정
- 또한 '09.1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사상 최대 폭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18.9%, 전월대비 2.7% 감소
- 全美 주택건설업협회(NAHB)의 3월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지수가 9에 불과하는 등 2월 주택경기 지표의 호전소식은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는 편
 - 체감경기지수가 9라는 것은 주택건설업체 100곳 중 주택경기를 낙관하는 곳이 단 9곳에 불과하다는 의미

FHFA의 美주택가격 전망치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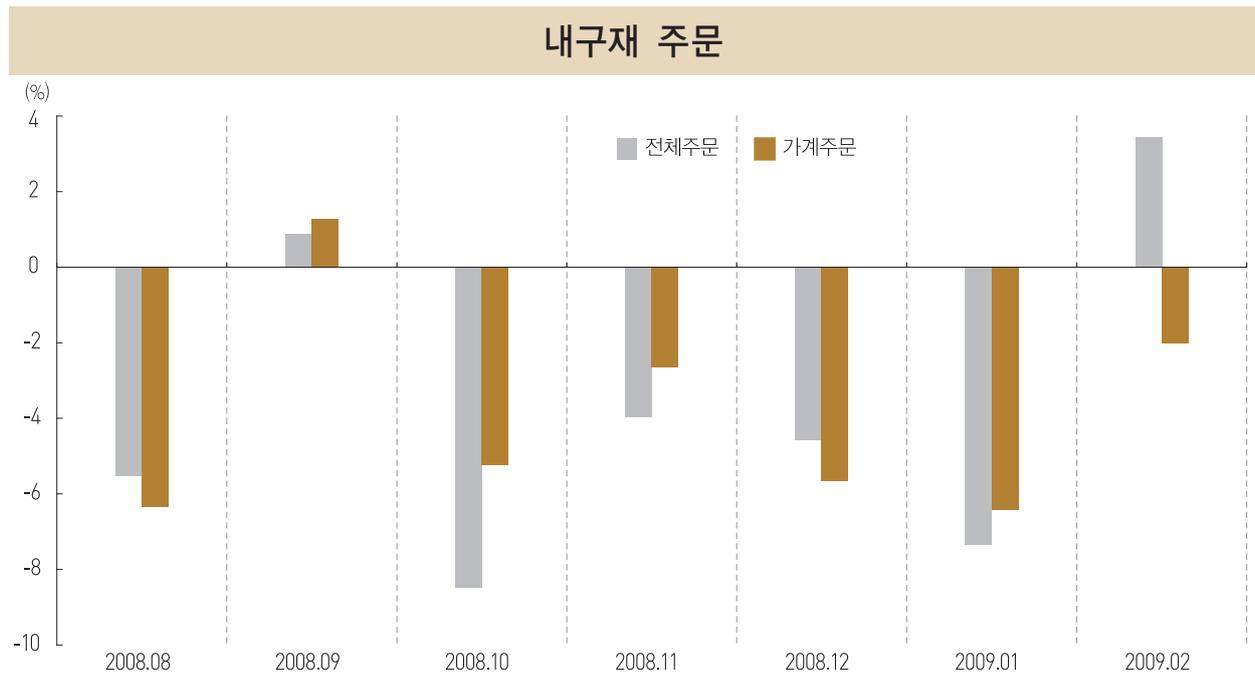
제조업과 소비시장의 경기회복 신호도 가계소비 회복과 괴리되면서 발생한 것

- 전월대비 3.4% 증가한 2월 내구재 주문실적은 대부분 정부발주 국방부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가계소비 회복과는 괴리
 - 국방부문 수주를 제외하면 전월대비 1.7% 증가에 그쳤고, 내구재 주문 중 실제 가계 부문은 전월대비 2.0% 감소한 상황
- '09.2월 소매매출 또한 전월대비 0.1% 감소하면서 예상치(0.5% 감소)보다 양호했으나 월마트 매출을 제외할 경우, 전월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월마트만의 매출성장은 가계가 최소한의 소비만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불황의 단면을 보여줄 뿐, 가계소비의 전반적 회복과는 괴리

■ '09.2월 전월대비 0.2% 증가한 소매매출의 경우에도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에서 발생

○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경우, 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은 전월대비 1.5% 감소



주 : 전월대비 증가율

□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은 높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경기상황을 지켜볼 필요

■ '09.2월 주택경기 및 가계소비의 일시적 회복을 경기회복과 맞물려 해석하는 것은 설익은 기대에 불과

■ 당분간은 통계치의 액면값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값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현 경제위기에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김영훈 연구위원(729-6369)

II. 미국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고찰

- 양적완화정책은 경기부양과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본 고에서는 美 양적완화정책의 전개 추이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찰

■ 양적완화정책은 통화량 자체를 늘림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비상정책

- 양적완화정책은 금리인하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자금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비상정책
 - 정책금리 인하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거나, 유동성 함정에 빠져 금리인하가 더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자금을 공급
- 美 연방준비이사회는 국채 시장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자금경색을 완화할 목적으로 향후 6개월 동안 3,000억 달러 한도로 미국의 장기국채를 매입할 계획
- 미국은 존 F. 케네디 정권 때, 단기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음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공개시장조작의 한 방법으로 장기증권 매입과 단기증권 매도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실제 시장의 통화량은 유지하되 장기금리를 인하시키고 단기금리는 인상시키는 효과를 발휘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금융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유동성 공급 없이 자금의 이동을 유도하는 반면 양적완화는 금융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유동성 총량 자체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차이

■ 양적완화를 포함하여 미국의 유동성 공급계획은 무려 12조 달러

- 미국은 연방준비이사회의 양적완화와 재무부의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총 12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
 - 이는 '08년 미국 GDP(14조 2천억 달러)의 8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광의의 통화량(M2, 8,276억 달러)의 1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

- 국채 직매입을 포함하여 수많은 긴급대출제도의 시행, 기업어음(CP) 시장 지원, 외국 중앙은행에 무제한적 통화스왑 제공, 정책금리의 제로 수준 인하 등 대대적인 유동성 주입과 통화 완화정책으로 구성

■ 주요 기관의 유동성 공급 계획 ■

(단위 : 10억 달러)

기관	내용	계획	기 집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경매조건부 대출지원	900	448
	기타 대출 (Primary credit 등)	무제한	205
	기간증권대출기금 (TSLF)	200	26
	기업어음매입기금 (CPFF)	1,800	242
	기간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 (TALF)	1,000	0
	GSE 부채 및 MBS 매입	1,250	107
	머니마켓투자펀드기금 (MMIFF)	540	0
	통화스왑	무제한	375
	장기 국채 매입	300	0
재무부	부실자산구제계획 (TARP)	700	550
	패니매, 프레디맥 지원	400	0
	가계안정 플랜	75	0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미국 은행 채무 지급보증	1,400	175
	요구불예금 지급보증	500	0
연방주택국(FHA)	모기지 자금 조달	100	0
의회	2008년 세금환급 경기부양책	170	170
	2009년 경기회복 및 재투자안	789	789
FRB, FDIC, 재무부 공동	민관투자 프로그램(PPIP)	1,000	0
기타	AIG, 베어스텐스 구제금융 등	1,013	587
합계		12,137	3,674

자료 : 재무부, FRB, FDIC, FHA, Moodys.com, 블룸버그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정상화되고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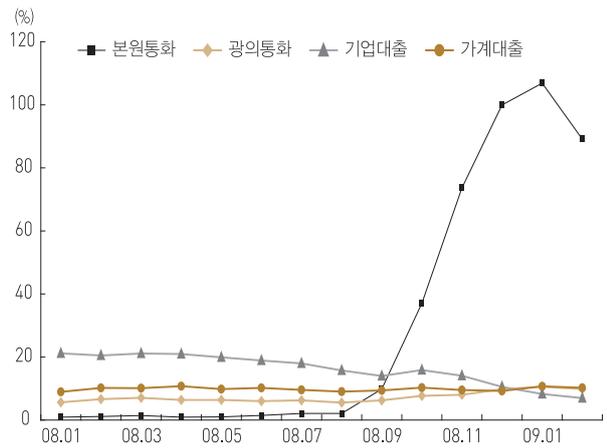
- 유동성을 확보한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가계의 신용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자금시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가능성
 - 또한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재무부로서는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양적완화로 인해 달러 약세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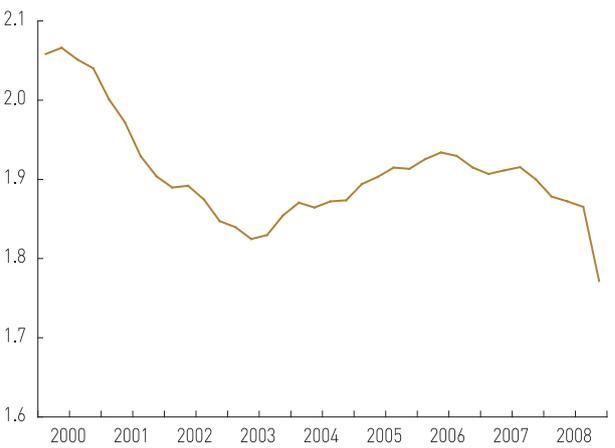
□ 그러나 양적완화에도 신용경색이 여전할 경우 심각한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존재

- 마지막 정책수단인 양적완화가 실패할 경우,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이 장기화됨은 물론 디플레이션을 저지하는 데 속수무책이 됨
 - 금융위기 이후 본원통화는 급격히 팽창하였으나 은행대출의 증가폭은 기대만큼 크지 않고, 화폐유통속도 또한 '03년 IT버블붕괴 직후보다도 느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美 경제 전반의 신용경색은 심각한 편

통화 및 은행대출 증가율



화폐유통속도



주 : 통화 및 은행대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FRB, 미 재무부

□ 또한 양적완화 성공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사항

-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실물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이번 양적완화 이후에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은 지나친 통화량의 증가에 의한 통화인플레이션임
 - 통화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 흡수를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펴게 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부담 증가로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위험이 존재
 - 또한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달러표시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

■ 향후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일단 미국의 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 실시로 인해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세는 어느 정도 완화된 편
- 그러나 불태화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장기국채 직접매입은 급격한 통화 팽창을 초래하고, 그것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직접 매입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유입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시중에 제대로 유통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
- 양적완화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내용문의 : 기은경제연구소 이경재 연구위원(729-6522)

Ⅲ. 금융위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의 영향

시중자금이 단기부동화되고 MMF로 집중되는 중

- 단기자금이 '08.12월 575.4조원에서 '09.2월에는 633.1조원으로 2개월 만에 10.0% 급증
 -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안, 대체투자 자산의 부재 등이 단기부동화의 원인
- 특히 단기부동자금은 MMF로 집중되는 상황
 - MMF는 88.9조원('08.12월말) → 122.2조원('09.2월말) → 126.6조원('09.3.16일)으로 '08.12월말 대비 37.7조원(42.4%) 증가한 상황
 - MMF가 다른 단기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환전한 자금이 주로 MMF에 유입되었기 때문

금융위원회,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 (3.16일) 발표

- MMF의 채권이나 CP 투자비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만기 1년 이내 국채에만 한정된 투자범위를 만기 1~5년인 국채로 확대
 - MMF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중장기 국채의 발행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기대
- 미국의 MMF 제도의 잔존만기 기준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유사
 - 편입증권의 잔존만기는 최대 397일까지 가능
 - 미국의 경우 '83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MMF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이후 편입자산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 중

시장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 금융위의 기대와 달리 투자범위 확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 MMF 가중평균보유만기 규정을 현행(90일)대로 유지한 채 만기 1년 이상 채권을 편입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편

Ⅲ. 금융위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의 영향

- 1년 이상 채권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MMF의 가중평균보유만기 기한을 연장한다면 일
반채권펀드와 같아지게 되는 상황
- 현재 단기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거나, 경기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중자금
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
- 최근 MMF는 3.16일 126.6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25일 현재 124.4조원으로
2.2조원 감소했지만, MMT 잔고는 3.25일에 18.1조원으로 2월말 대비 3조원이 증가
- MMF로의 자금유입을 억제하면 단기자금이 장기자금으로 가지 않고 다른 단기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편

■ 우리나라 개정안과 미국 MMF 제도의 비교 ■

우리나라		미국
현행	개정안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241조 1항】		【Rule 2a-7,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잔존만기 제한) - 잔존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 1년이내 채권 (국채포함) 및 CP, 6개월 이내인 예금 - MMF 전체자산의 가중평균 잔존 만기(듀레이션)는 90일 이내	· (국채증권 잔존만기연장) - 펀드자산의 5%이내에서 잔 존만기 1년이상~5년이내 국채증권 편입가능	· (잔존만기 제한) - 편입증권의 잔존만기는 최대 397일 - 예외적인 경우, 잔존만기가 762일 이내인 정부채 - 가중평균 만기조항 동일(90일)
· (투자금지)주식, 파생결합 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금지	· (투자금지) 동일 · (분산투자 강화) 증권최소투자비율 한도(40%)설정 : 채권·CP	· (분산투자) 증권최소투자비율 (40%이상) 동일
· (신용등급 제한) - 신용평가등급 상위2개 등급에 해당하는 증권들만 포함 -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 자는 최상위 등급의 경우 펀드 자산총액의 5% 이내, 차상위등급 은 2% 이내	· (신용등급 제한) 동일	· (신용등급 제한) - 상위2개 등급 내용동일 -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는 최상위 등급의 경우 펀드 자산총액의 5% 이내, 차 상위 등급은 1% 이내

내용문의 : 기은경제연구소 임혜진 연구위원(729-6616)

I. 해외경제

실물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글로벌 금융안정정책 시행

■ 실물경제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

- 美 3월 실업률은 8.5%로 '83.11월(8.5%) 이후 최고치이며, 4개월 동안 매일 평균 0.4%p 상승하는 등 향후 실업률은 10%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
- 최근 우량자산 대출에 주력해 온 모기지업체 손버그(Thornburg)가 파산보호를 신청(4.1일)하면서 모기지 부실이 서브프라임에서 ALT-A까지 확대되는 상황
-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단칸지수 중 대기업의 업황은 '09.1/4분기에 사상 최저치(-58)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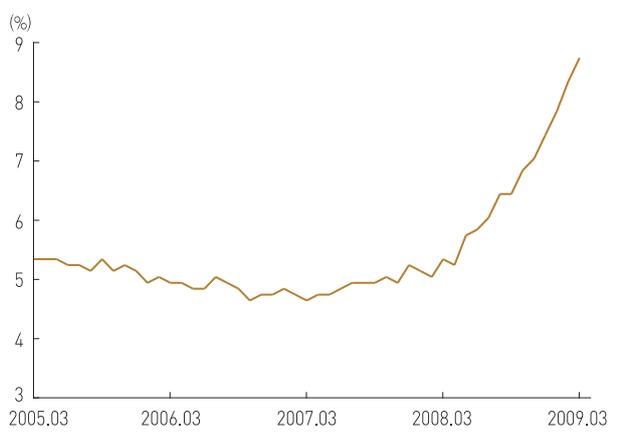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안정정책으로 실물경제 침체 저지 노력 중

-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의 운용기금을 7,500억 달러로 늘리고, 추가로 무역금융기금을 2,500억 달러 조성하는데 합의
- 중국의 경우, 3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1조 8,900억 위안까지 확대(전년동월대비 6배 이상 증가)되었고 통화(M2) 증가율은 '06.1월(19.2%)이래 최고 수준인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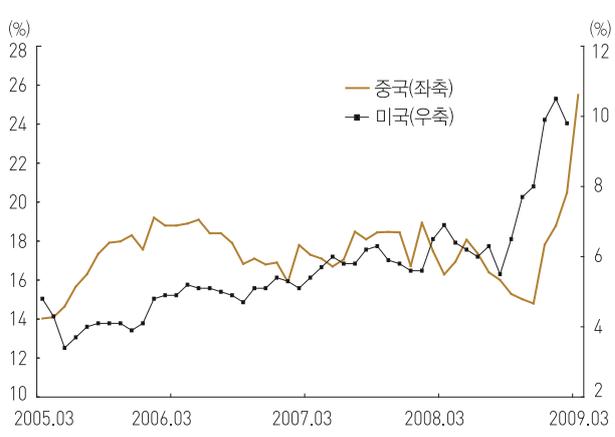
■ 하지만 금융안정정책에 따른 우려요인 또한 상존

- 美 FASB는 시가평가 회계기준에 관해 기업들에게 종전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4.2일)하여 문제를 뒤로 미룬다는 비판에 직면
- 또한 공격적인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경기회복 후 인플레이션 위험도 존재

미국 실업률



미국과 중국 통화량(M2) 증가율



주 : 통화량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II. 국내경제

전월보다는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기회복은 여전히 불투명

■ 일부 지표들의 하락폭이 둔화되었지만 소비부진과 실업률 급등 등 불안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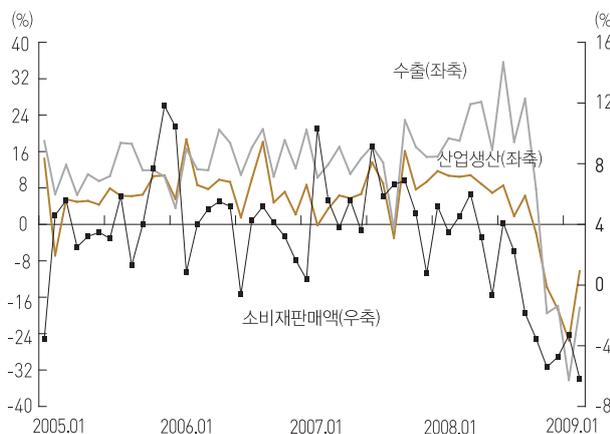
○ 2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하여 1월(-25.5%)에 비해 하락폭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감소 폭이 큰 상태

- 조업일수 및 설 명절 영향을 감안하면 전년동월대비 15.5% 감소
- 산업별로는 1차 금속, 자동차, 반도체 및 부품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6.7%로 사상 최저치였던 1월(61.4%)에 비해 상승
- 2월 소비재판매액은 비내구재, 내구재, 준내구재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6.2% 감소
- 2월 실업률은 3.9%(실업자수 92.4만명)로 '06.3월(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업률은 상당기간 동안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자영업주가 2월 한 달 동안 25.6만명 감소(전년동월대비 -4.4%)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2.0으로 전월(92.4)보다 하락한 반면,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4.0%로 전월(-4.5%)보다 완화되는 모습

○ 일부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과 글로벌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지속 전망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추이



주 : 주요 경제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Ⅲ.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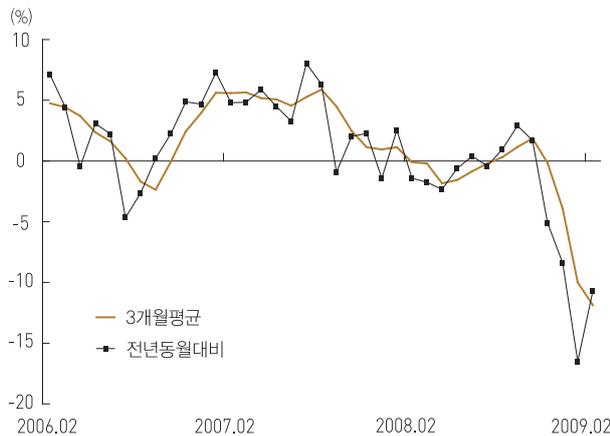
■ 글로벌 경기침체 및 내수악화로 인해 중소기업 생산의 급격한 감소세 지속

-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했으며, 전월대비로도 3.1% 감소
- 2월 생산은 설 연휴이동(작년 2월→금년 1월)에 따른 기저효과로 생산증가율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전월대비 증가율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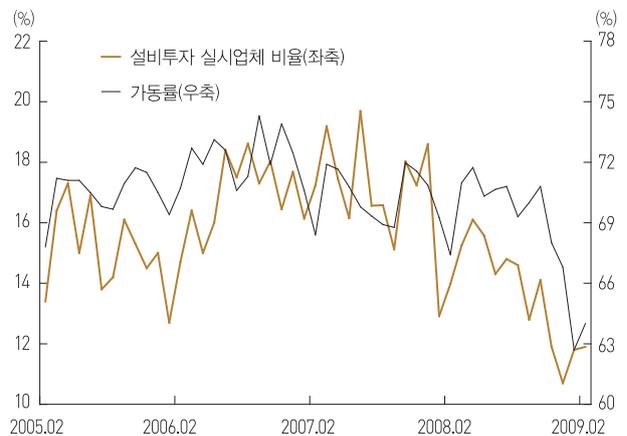
■ 설비투자 및 가동률은 전년동월대비 여전히 부진하지만, 전월대비로는 소폭 개선

-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전월(11.8%)과 비슷한 수준인 11.9%로 나타났으나,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최소한의 설비투자만 이루어지는 상황
- 평균가동률 또한 최저점을 기록한 전월(62.7%)대비 소폭 상승한 64.0%를 기록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및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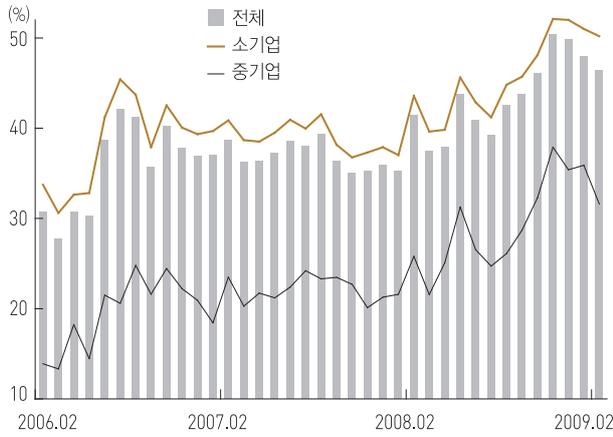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08년 말부터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곤란업체비율이 46.4%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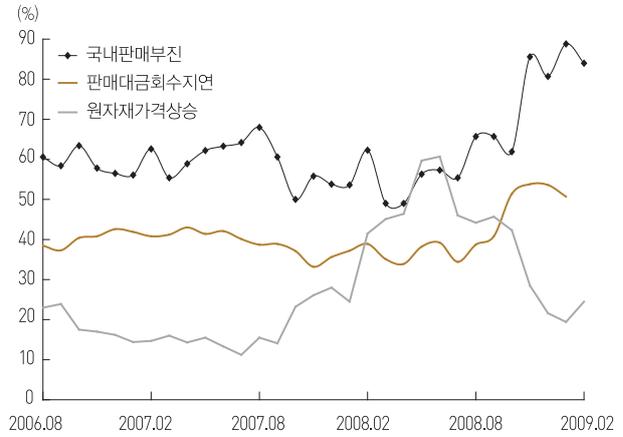
- 정책당국의 신용보증 정책 확대, 금융기관 대출독려 등의 이유로 소폭 개선
- 최근 주요 자금사정 곤란사유를 보면 국내판매 부진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판매대금 회수지연, 원자재가격상승 등의 순임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악화업체비율 추이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악화 원인



고용 증가 업체비율의 상승 및 감소 업체비율의 하락으로 고용사정은 전월보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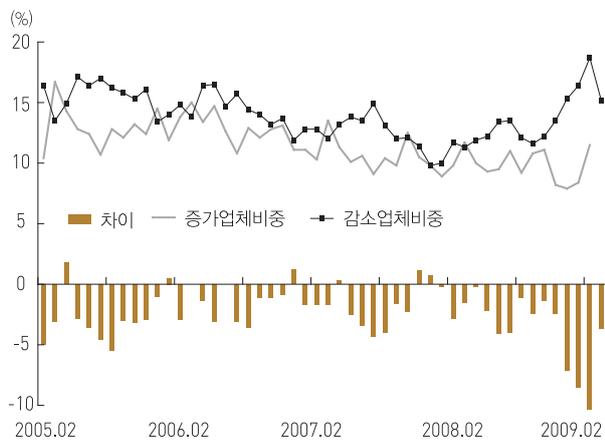
○ 경기침체로 인한 인력조정이 일단락되고, 재고감소와 수주의 소폭 증가로 인해 고용 동향이 다소 개선

신설법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부도법인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신설/부도법인 배율은 전월보다 급등

○ 부도법인 수의 감소는 대출금리 인하, 정부의 보증확대 등에 힘입어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된 것에 기인하며, 신설법인의 증가는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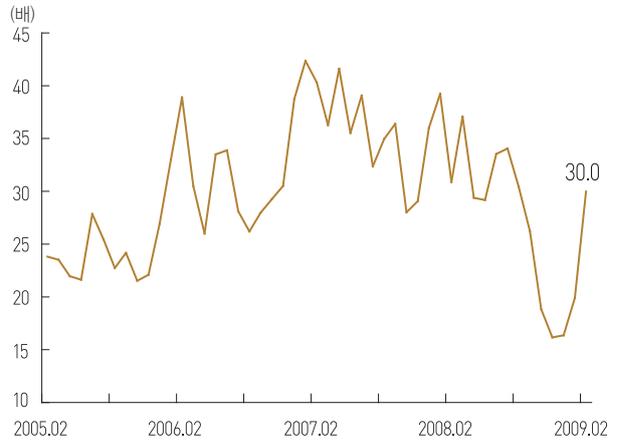
· 신설/부도업체 배율 : 16.4('08.12월)→ 19.9('09.1월)→ 30.0('09.2월)

중소제조업 고용 추이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신설/부도법인 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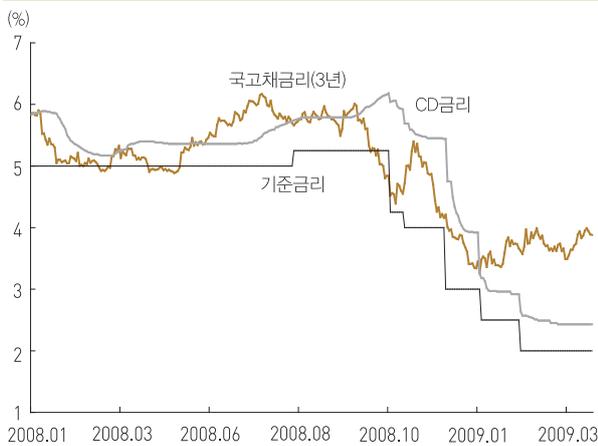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IV.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 폭 확대 가능성

-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실물경제지표의 하강 속도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를 2.0%로 동결
 - 한은은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 여지를 남겨 두었으며, 필요시 국고채 직접 매입 가능성을 열어둠
 - 기획재정부가 추경편성분을 반영하여 4월부터 국고채 발행량 증가를 발표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였으나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은 제한적
- 세계교역량 감소 등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악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환율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
 - 3월 무역수지 흑자(46억 달러), 주가상승 등 최근 경기호전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일일 변동폭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
 -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러시아, 헝가리 등 신흥시장들의 금융시장 악화는 환율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변동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 최근 일본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당분간 엔화 약세는 불가피할 전망

금리 추이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V. 자금흐름

■ 금융시장 회복기대로 단기자금이 감소했으나, 본격적인 자금이동은 제한적

■ 주식 등 금융시장 회복기대로 MMF 위주의 단기사중자금 중 일부가 증권사 고객예탁금 등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면서 자산운용사 수신은 전월에 비해 감소

○ 그러나 본격적 경기회복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사중자금의 감소는 제한적

■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7		2008		2009			09.3월 잔액
	연중	3월	연중	3월	1월	2월	3월	
은행 수신	51.0	10.9	95.5	-6.0	-5.5	20.6	-5.2	916.4
(수시입출식 ¹⁾)	-6.9	5.7	11.5	-7.3	-0.1	15.7	-1.0	258.2
(정기예금)	11.8	0.2	61.8	1.7	2.6	4.9	-1.7	342.3
(CD)	28.2	0.2	7.4	-1.0	-3.0	0.9	-0.9	99.6
(은행채)	29.2	4.1	22.1	1.1	-3.0	-2.0	0.4	154.8
자산운용사 수신	61.8	3.4	63.0	0.4	17.7	11.4	-3.0	385.6
MMF	-10.4	-0.8	42.2	-6.3	18.5	14.8	-3.7	118.4
주식형	69.9	2.1	23.9	3.8	-1.0	-1.1	1.5	139.6
채권형	-9.6	-0.4	-10.5	-0.4	1.8	-1.2	1.4	32.4
혼합형	-3.3	-0.7	-5.4	0.9	-1.2	-0.7	-1.3	36.0
신종펀드 ²⁾)	15.3	3.3	12.9	2.4	-0.4	-0.4	-0.8	59.3
증권사 CMA	18.5	2.5	3.5	0.6	3.4	1.1	1.4	36.6

주 : 1) 요구불예금 포함 2)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금융투자협회

■ 기업 및 가계대출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힘입어 기업대출의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

○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가계의 생활안정자금 수요 증가 등에 기인

■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동향 ■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7		2008		2009			09.3월 잔액
	연중	3월	연중	3월	1월	2월	3월	
기업대출 ¹⁾	73.7	6.1	68.6	6.9	5.8	1.5	2.1	469.2
(대 기업)	8.5	-0.6	23.6	2.6	3.3	-1.3	-1.3	60.1
(중소기업)	65.1	6.7	45.0	4.2	2.6	2.8	3.4	409.1
기업직접조달 ²⁾)	8.5	-0.7	26.5	-2.4	10.9	6.0	4.6	-
가계대출 ³⁾	17.8	0.7	25.0	2.4	-1.6	2.8	1.9	391.6
(주택담보대출)	4.6	0.1	18.1	1.0	1.8	3.3	2.5	247.3
(마이네스통장대출 등)	13.0	0.6	6.8	1.4	-3.2	-0.3	-0.6	142.7

주 : 1)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제외) 2) 직접조달 = CP순발행 + 회사채 순발행 + 주식발행

3) 신탁포함, 증별대출은 신탁 제외,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I. 2/4분기 중소기업 경기전망

2/4분기 경기는 하락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기대

- '09. 2/4분기 전반적인 경기전망 BSI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였던 1/4분기 전망치(59)에 비해 큰 폭(31p) 상승하여 90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100 이하
 - 일부업종(비금속 광물제품, 음료, 의약품, 전자제품)의 경기전망 BSI는 100 이상으로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나,
 - '09. 2/4분기 숲 산업 경기전망 BSI는 100 이하로 조사됐으며, 수주·판매·채산성 BSI도 전분기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 이하
 - 산업별로는 경공업이, 형태별로는 생활관련 산업의 경기 하락세가 뚜렷
 - 특히 판매대금을 현금화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계속 이어질 전망

중소제조업 전망 BSI

		'08년	'09년	'09년	'09.2/4				'08년	'09년	'09년	'09.2/4	
		2/4	1/4	2/4	전년	전			2/4	1/4	2/4	전년	전
		분기	분기	분기	동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동기	분기
경기 전반	전체	111	59	90	▽	▲	단 가	내수	106	89	94	▽	▲
	-경공업	105	64	86	▽	▲		수출	102	82	90	▽	▲
	-중화학공업	116	55	93	▽	▲		수익	채산성	95	61	81	▽
수주	전체수주	114	61	92	▽	▲	고 용	종사자수	104	90	97	▽	▲
	수출주문	115	65	89	▽	▲		종사자확보사정	99	97	100	▲	▲
판매	내수	113	61	91	▽	▲	자 금 사 정	판매대금현금결제	97	78	89	▽	▲
	수출	106	69	87	▽	▲		매출채권현금화사정	96	78	88	▽	▲

주1 : BSI (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경기예측기법

주2 :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분기와 비교하여 경기가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업체수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수를 상회, 100 이하면 하회를 의미

자료 : 기은경제연구소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이민재 연구원(729-6594)

II. 중소기업 컨설팅 사례

Problem 경제침체의 위기상황이지만 임직원마인드는 그대로...

- 건축용 자재를 납품하는 B사의 CEO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폭풍이 몰아치던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리고 위기에 대비해야 함을 직감했으나, 직원들의 변화 및 혁신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상황이었음
- CEO의 이러한 고민을 접한 지행장은 컨설팅서비스를 추천하게 됨

What to do? 임직원들의 변화관리를 위한 컨설팅 실시

- 고객의 컨설팅 니즈를 파악한 컨설턴트들은 2차례의 전직원 변화관리 교육과 4차례에 걸친 관리자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 생산현장의 진단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과제를 선정하게 하고 현장관리자들과 같이 개선활동을 지원함

Solution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동기부여를 통한 변화 유도

- 변화관리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위기관리 및 변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 직원들이 평소에 막연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실제 개선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현장에 활력이 생김
- 또한, CEO는 경영진단을 통해 기업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됨

Review CEO 이하 전 직원의 의식 변화로 활기찬 기업 문화 정착

- 생산현장 직원들이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작업 전 팀별 구호를 외치는 등 조직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으며, 이러한 모습에 CEO가 크게 만족해 함
-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나 위기의식 및 변화에 대한 마인드는 쉽게 바뀌지 않기에 컨설팅이라는 촉매제를 통해 역동적인 기업문화 형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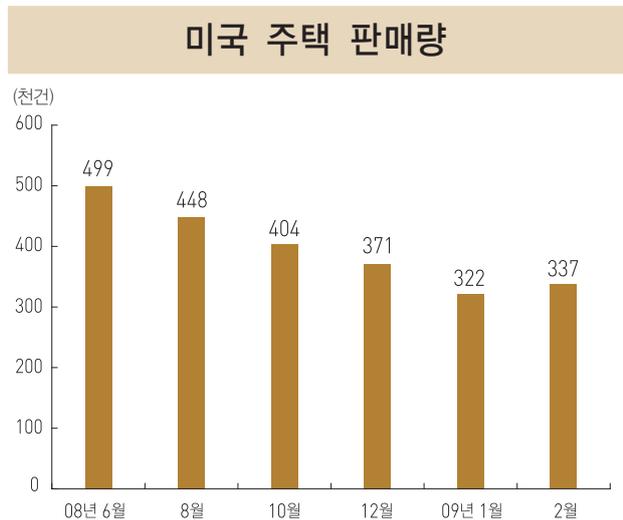
내용문의 : 기은컨설팅센터 유휘동 과장(6322-5178)

Ⅲ. 부동산 및 세법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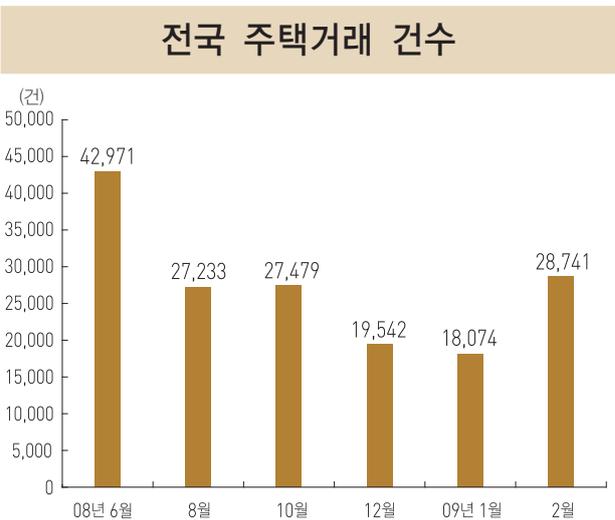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가격 반등세 유지

■ 미국과 국내의 주택거래량이 증가세로 전환

- 미국의 2월 주택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4.7% 증가하면서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2월 주택계약지수도 전월대비 2.1% 상승한 82.1(2001년 평균=100 기준)을 기록
-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거래량이 19,542건까지 하락하였으나 금년 2월 주택거래량은 28,741건으로 증가세



자료 : 미국 상무부



자료 : 국토해양부

■ 수도권지역 약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가격 하락폭 감소

- 경기(-0.44%), 서울(-0.43%), 인천(-0.39%) 등 수도권의 토지가격이 전국 평균치를 하회
- 경북 경산(-0.99%), 군산시(-0.90%), 수원시 장안구(-0.68%), 서울 중구(-0.67%), 종로구(-0.65%) 등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경기도 양주(-1.04%)는 가장 큰 하락 폭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배제 및 토지보상금의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토지가격의 반등이 예상

■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대대적으로 실시

- '17년까지 서울 시내 30곳이 산업뉴타운으로 지정, 서울의 핵심산업거점으로 육성될 예정
- 1차 산업뉴타운으로 여의도, 성수, 양재, 마포, 종로, 중구 6곳 지정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금융, R&D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뉴타운 30곳에 3조 4,420억원 투입 예정
- 7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7만 2,000개 창출 기대

산업뉴타운 지정 위치도



- 준공업지역 및 구도심의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산업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이 완화
- 이미 신성장동력산업지구로 지정, 전환계획을 하고 있는 곳에도 제한을 완화시킬 예정

[세법] 소득세가 많은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이 유리

-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과세소득이 증가할 때,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면 세 부담이 경감
 -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 필요
 -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문제 발생
-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현금출자가 아니므로 출자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문제가 발생
 -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도 많이 발생

○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 적정한 매매가액으로 거래가 된다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실무적으로 선호

■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문제

○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음

- 세법에서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음

○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과세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

구 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창업절차 및 설립비용	설립절차 간단	설립절차 복잡 (설립등기)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 소요
취득세/등록세	부동산 취득 4.6%	법인등기 등록세 : 0.4% (과밀억제권역내 3배중과) 부동산 취득 : 4.6% (과밀억제권역내 3배중과)
세 율	소득세율 6%~35% (2010년 6%~33%)	법인세 11%, 22% (2010년 10%, 20%)
신고/납부할 세금	종합소득세 : 매년 5월말 부가가치세 : 1, 7월 연2회	법인세 :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 1,4,7,10월 연4회
자금 사용	제한 없음	급여 또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통해 인출가능
기 타	개인사업자의 무한책임	출자한 지분 한도 내 주주유한책임 법인자금인출시 소득세 추가과세

내용문의 : PB고객부 이경진 세무사(729-6954)
PB고객부 김일수 부동산전문가(729-7189)

IV. 서 평

그레이트 체인지 & 위닝(GREAT CHANGE & WINNING)



“2009, 빅 찬스의 징후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글로벌 대변혁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91쪽

이 책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상황들 및 각국의 대응정책과 정책의 시사점, 의미, 향후 벌어지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위기roman만 보지 않고, 위기 속의 기회<Great change & winning>를 찾는 긍정적인 안목을 보여주려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개도국의 수출, 소득, 고용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소비 및 투자 감소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직면한 전 세계적인 변화는 그 규모와 범위에서 일상적인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대략 '09~'12년 사이에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판도가 어지러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도변화에 있어 개인들이 견지해야할 올바른 소비습관, 투자시기 및 대상, 향후 성장산업 등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즉 정책의 이해를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경제부 기자인 만큼 목차, 소제목 등 책 전반에 걸쳐 키워드를 뽑아서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 쉬운 편이며, ‘변화의 키워드’란 섹션을 중간 중간 실어서 미래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도 키워드로 요약해 독자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긍정적인 어조로만 쓰인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이번 위기를 흔히 대공황과 많이 비교하는데 그 만큼 현재의 경기침체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다. 현재 각국이 공조해 엄청난 대응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려는 자세는 중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IB의 몰락과 Citi, BOA 등 대형은행의 국유화 논란, GM의 파산 현실화 가능성, 실물경기 지표들의 급락 등 세계경제가 최악의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나타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권 형 택 (기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IBK기업은행 지행장 101명이 말하는 『적자사장 흑자사장』



“**특징**은 같으나 **결과**는 달라지는
흑자를 내는 사장과
적자를 내는 사장의 **통쾌한 분석!!**”

조병선 지음 ■ 해피맵북스 ■ 신국판 ■ 207쪽

얼마 전 유럽의 피터 드러커라고 불리는 헤르만 지문의 ‘숨은 강자들(The Hidden Champions)’이라는 책이 개정 출판되어 경영관련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다. 그 책을 접하면서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한권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런 막연한 바람에 딱 들어맞는 반가운 책을 접하게 되었다. 바로 기은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중인 조병선박사의 ‘적자사장 흑자사장’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중 소위 숨은 강자들의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집중 분석하여 일곱 가지로 정리한 책이다.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젊은 기업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여러 상황을 설정해 가며 대화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나간 책이다.

해외의 성공한 기업가들과 그들이 경영했던 기업들에 관한 풍부한 사례를 중심으로 책속의 주인공과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흑자사장의 성품을 갖추어 나갈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으로서 이미 세계시장에서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한 기업들의 사례를 각 장마다 들어놓음으로써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읽기 위해 한번 손에 잡으면 놓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사례와 이에 대한 분석을 독자의 흥미가 저절로 일어나도록 적절히 배합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해하기에 편안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경영학 비전공자들에게도 다가가기 쉬운 책이다. 특히 금융현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난 기업은행 우수 점포장들이 말하는 흑자사장과 적자사장의 특성을 수록한 부록의 내용도 흥미롭다.

이 책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지은이가 바로 조병선 소장 이라는 점이다. 기업은행부설 기은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지금까지 한점 흐트러짐 없이 중소기업관련 연구에 몰두해 온 분이다. 항상 현장 중심적이고 중소기업경영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온 저자의 경력을 놓고 볼 때 누구보다도 흑자사장과 적자사장의 특징을 잘 구별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독자들, 특히 기업에 계신 분들의 일독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유 관 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요 경제지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4분기	4/4분기	12월	1월	2월
성장	GDP(%)	5.2	5.1	3.1	-3.4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	99.9	100.6	99.4	96.2	94.7	92.4	92.0
	선행지수전년동월비(%)	4.9	6.0	-0.4	-2.4	-4.2	-4.5	-4.0
산업 활동	광공업생산(%)	8.3	6.8	5.5	-12.3	-18.7	-25.5	-10.3
	생산자제품출하(%)	7.6	7.1	5.2	-10.7	-15.5	-23.4	-9.6
	생산자제품재고(%)	9.1	5.7	17.7	7.0	7.3	0.4	-4.4
	제조업가동률(%)	80.0	80.1	78.3	69.3	62.3	61.4	66.7
	제조업BSI(실적치)	83	85	75	55	46	47	43
소비	소비재판매(%)	4.7	5.1	1.4	-4.5	-4.5	-3.3	-6.2
	소비자심리지수			93	84	81	84	85
투자	설비투자추계(%)	8.9	8.6	6.1	-16.8	-23.0	-25.9	-21.2
	기계수주(%)	14.3	19.8	24.1	-33.2	-38.5	-46.9	-28.8
	건설기성액(%)	2.6	6.6	11.1	-2.2	-8.6	-0.4	12.2
	건설수주액(%)	9.0	19.3	-22.8	-3.7	30.7	-15.0	-20.7
고용	실업률(%)	3.5	3.2	3.2	3.1	3.3	3.6	3.9
	취업자증가율(%)	1.3	1.2	0.6	0.2	-0.1	-0.4	-0.6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	5.5	6.4	2.8	-0.3	-1.2	-1.1	0.1
물가	소비자물가(%)	2.2	2.5	5.5	4.5	4.1	3.7	4.1
	(전월비)					0.0	0.1	0.7
	생산자물가(%)	2.3	1.4	12.1	8.0	5.6	4.7	4.4
	(전월비)					-1.7	-0.3	0.6
	전국주택매매(%)	6.2	9.0	5.0	3.1	3.1	2.3	1.7
	서울아파트매매(%)	13.6	16.0	7.1	3.2	3.2	1.7	1.0
국제 수지	경상수지(억달러)	53.8	59.5	-85.8	75.1	8.6	-16.4	36.8
	수출증가율(%)	14.4	14.1	27.0	-9.9	-17.9	-34.2	-18.3
	수입증가율(%)	18.4	15.3	42.8	-9.0	-21.6	-31.5	-30.9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4분기	4/4분기	12월	1월	2월
중소제조업	산업생산(전체,%)	1.8	3.9	1.2	-4.0	-8.4	-16.5	-10.7
	(중화학공업,%)	3.2	3.5	1.1	-2.8	-8.6	-19.4	-12.6
	(경공업,%)	-1.2	4.6	1.2	-3.0	-7.6	-9.9	-6.1
	설비가동률(전체,%)	72.1	70.4	70.0	68.5	66.8	62.7	64.0
	(소기업,%)	71.1	69.4	69.2	68.6	66.3	61.6	62.7
	(영세기업,%)	65.7	65.1	64.3	62.7	61.7	57.5	58.1
	(중기업,%)	78.2	77.0	75.9	73.4	70.2	67.3	69.0
	설비투자실시업체(전체,%)	16.6	17.3	14.1	12.2	10.7	11.8	11.9
	(소기업,%)	14.3	15.1	12.0	10.2	9.0	9.0	9.1
	(영세기업,%)	8.9	10.1	7.2	6.5	5.9	4.8	6.7
	(중기업,%)	30.6	33.1	28.6	27.0	23.1	23.3	23.1
	자금사정악화업체(전체,%)	35.3	37.0	41.8	48.8	49.8	48.0	46.4
	(소기업,%)	37.9	39.1	43.9	50.7	52.0	51.0	50.2
	(영세기업,%)	45.5	45.1	48.5	53.8	54.2	51.2	51.8
	(중기업,%)	19.3	21.9	26.5	35.2	35.4	35.9	31.6
	중소제조업고용(증가,%)	12.9	10.8	10.3	9.1	7.9	8.4	11.5
	(감소,%)	14.3	12.4	12.0	15.1	16.4	18.7	15.2
	(증감차,%P)	-1.4	-1.6	-1.7	-6.0	-8.5	-10.3	-3.7
	BSI 실적(기준=100)	84	84	74	57		56(1/4분기)	
	전망(기준=100)	106	106	84	99		90(2/4분기)	
기업일반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3	0.04	0.04	0.04
	신설법인(월평균, 개)	4,209	4,505	4,130	3,701	3,797	3,664	4,227
	부도법인(월평균, 개)	141	126	136	216	232	184	141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자금시장*	총예금(은행)	6.1	4.3	7.9	6.8	-5.5	20.6	-5.2
	(자산운용사)	2.5	5.1	-5.6	6.2	17.7	11.4	-3.0
	가계대출(총액)	3.4	1.5	2.2	1.6	-1.6	2.8	1.9
	(주택담보대출)	2.2	0.4	1.7	1.7	1.8	3.3	2.5
	기업대출(총액)	3.5	6.1	5.8	1.4	5.8	1.5	2.1
	(대기업)	-0.1	0.7	2.7	1.0	3.3	-1.3	-1.3
	(중소기업)	3.6	5.4	3.0	0.4	2.6	2.8	3.4
금리	콜금리(연%)	4.2	4.8	5.1	4.1	2.4	2.1	1.8
	국고채3년(연%)	4.8	5.2	5.9	4.7	3.4	3.8	3.7
	회사채3년(AA-, 연%)	5.2	5.7	7.2	8.3	7.3	7.1	6.1
환율	원/달러	954	929	1,063	1,363	1,346	1,429	1,462
	엔/달러	116.3	117.8	107.6	96.0	90.6	92.4	97.7
	원/엔(100엔)	822	789	988	1,421	1,487	1,546	1,496
	달러/유로	1,256	1,371	1,503	1,320	1,333	1,280	1,304
국제금리	미국국채10년(연%)	4.7	4.0	3.85	3.22	2.46	2.86	2.81
	일본국채10년(연%)	1.7	1.7	1.51	1.43	1.25	1.30	1.31
유가	WTI(\$/bbl)	66.3	72.4	117.9	59.1	41.9	39.3	48.1
	Brent(\$/bbl)	66.1	72.7	117.2	57.5	45.7	43.9	47.4
	Dubai(\$/bbl)	61.5	68.2	113.7	52.9	44.1	43.1	45.6
원자재	금(\$/온스)	608	701	873	796	862	943	926
	전기동(\$/톤)	6,675	7,096	7,584	3,950	3,261	3,352	3,786
	알루미늄(\$/톤)	2,592	2,662	2,843	1,882	1,449	1,368	1,373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단위 : 조원, 기간중 말잔 기준 증감액, 연간·분기 자료는 기간중 월평균 증감액